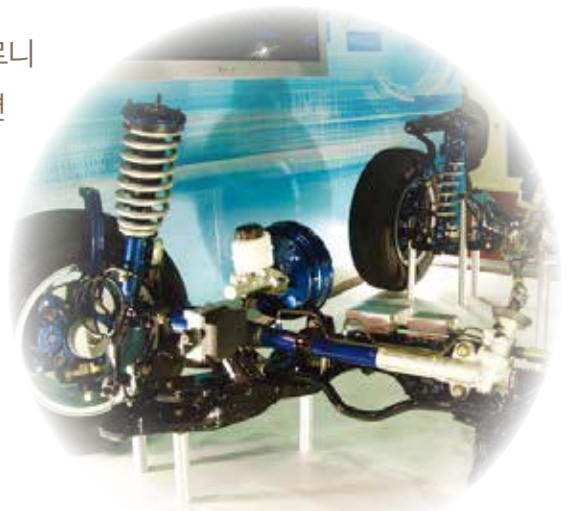


부품가격 미리 확인하니 바가지 쓸 걱정 없어요!

“자동차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데, 카센터마다 다른 가격을 부르니 화가 나네요. 인터넷으로 부품 가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부품 가격을 부풀려 파는 카센터가 불만이던 P씨의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 부품 가격자료 공개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되며 소비자의 알 권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



개선 전

자동차 부품 가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사례 발생

개선 후

부품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별로 자료를 갱신하도록 의무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부, ’14.5월))

120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연비 관리제도 통합

헛갈리는 자동차 연비는 이제 그만!

“부처마다 자동차 연비 정보를 다르게 제공하니 도대체 무얼 믿어야 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D씨는 어느 부처의 말을 신뢰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한편, P자동차 제작사는 신차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개발비 증가 및 양산시기 지연으로 고민 중입니다. 정부 부처별로 다른 연비규정과, 업계 중복규제 때문에 혼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연비 측정기준과 사후관리를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에서 각각 운영관리하며 부처별로 연비측정 절차가 통일되지 않았고 중복규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비 시험방법을 통합하고, 판매된 자동차의 연비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했습니다. 아울러 연비 신고를 원스톱으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공동 신고포털을 운영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연비관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소비자의 혼선도 줄이게 됐습니다.



• 연비 표기에 대한 소비자, 제작사 혼란 해소



개선 전

부처별 연비 시험방법 별도 운영, 부처별 연비 사후 관리 별도 시행, 제작사가 부처별 별도 연비 신고

개선 후

연비 시험방법 통합, 연비 사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온라인 원스톱 신고를 통한 부처간 정보 공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국토부 · 산업부 · 환경부, '14.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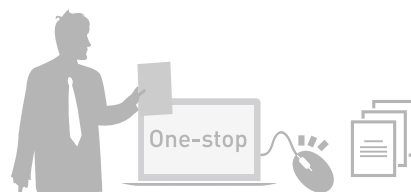
121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처리 창구 일원화

경찰 민원, 접속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가능!

A씨는 최근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경찰관서에 직접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민원 포털시스템이 구축돼 경찰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진 범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했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까다로웠습니다. 경찰 민원의 온라인 처리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있지 않아 대부분의 민원을 경찰관서에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 관련 민원 시스템을 통합해 인터넷 접속 한 번으로 각종 경찰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시스템이 구축돼서 이런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 연간 약 900만건 민원 중 50% 온라인 처리시 1,467억원 사회적 비용 절감(추정)



개선 전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된 민원 처리 기능
대부분의 민원은 방문 처리

개선 후

사이버경찰청, 안전드림 등 기존 대국민 시스템(8개)의 분산된 민원 처리 기능을 모두 통합, 접수 및 처리 창구 일원화
사이버경찰청, 안전드림 등 8개 시스템에 분산된 민원처리 기능 통합 (경찰청, '14.12월 예정)

문의 :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민원실 (02-3150-0434)

“범죄경력회보서 손쉽게 발급해요!”

“돈 들어 번역하고 공증까지 받으려니, 참 취업하기 힘드네요.”
미국기업에 입사 지원한 A씨는 영문으로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해 국문으로 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후 자비로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물론 번역, 공증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취업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존엔 국문으로 된 회보서만 경찰서에서 직접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후론 언제 어디서나 국·영문으로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APPLICATION FOR CRIMINAL HISTORY INFORMATION RECORD

성명 NAME	Hong, Gildong		성별 GENDER	♂
주민등록번호 RESIDENCE NO.	123456 ~ 1234567	전화번호 PHONE NO.	555-5555	
주소 ADDRESS	16-1 Jeong-Dong, Jung-Gu, Seoul			
조회목적 INQUIRY OF PURPOSE	✓내용확인용 CONTENT VERIFICATION			
조회범위 INQUIRY RANGE	✓범죄경력 CRIMINAL HISTORY	✓수사경력 INVESTIGATION HISTORY	✓실종원형도함 INCLUDING THE LAPSED RECORDS	
발급방법 METHOD	○영문 발급 READING ✓회보서 POLICE CERTIFICATE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1. 11. 11.

신청인 (서명)



- 연 93만건의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시, 345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추정)



개선 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개인이 한글 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한 뒤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개인이 직접 경찰서 방문 필요

개선 후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시 영문화보서 발급 가능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가능

이민·취업 등 해외체류용 영문화보서('14.7월), 온라인 발급 (경찰청, '15.1월)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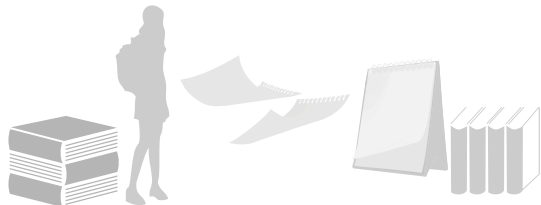
대입전형 예고기간 확대 및 발표된 시행계획 변경 제한

해마다 바뀌던 대입제도, 이젠 혼란스럽지 않아요!

“작년부터 꾸준히 논술 공부에 집중해왔는데 논술 비중이 줄어든단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고3 A양은 막막합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대입전형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던, A양의 동생 역시 입학사정관제 폐지 소식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처럼 매년 새로 발표되는 대입제도에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이제 맘 놓고 미리 전략을 짜며 대입준비를 해도 좋습니다. 대입전형 발표일을 앞당기고, 한번 내놓은 전형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한 덕분입니다. 이로서 고1 8월엔 대학 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고2 4월엔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 확보
(‘14년도 지원인원 690,747명,
응시인원 606,813명)



개선 전

매 입학년도의 1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고 1년 3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
공표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개선 후

매 입학년도의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고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

공표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엄격히 제한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허용

* 관계 법령의 제·개정, 대학 구조개혁, 대입전형기본사항 변경, 정원감축 등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 ‘14.4월)

문의 :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4)